

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자

불자수 전국 최저지만 무종교는 가장 많아, 포교의 '블루오션'

우리나라 불자수는 1985년 805만 9624명에서 2005년 1072만 6463명으로 266만 6839명이 증가했다.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종교 인구 기준은 전국적으로 불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67.4%)과 제주(63.7%)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불교'인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도는 각각 29.9%, 23.9%, 33.1%로 부산과 제주의 절반에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인 43%보다 낮으며 교세가 제일 약한 인천(27.3%)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센터장 정선)가 지난해 다문화 가정에 김장 김치를 전달하고 있다. 광주 불교는 복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불교 활성화에 노력 중이다.

호남불교의 위기는 청년 불자의 실종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조계종 교구 분사 중 신도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찰도 있고, 신도 대의원대회를 열어 80대 이상 고령자들을 어렵게 함께 찾아 볼 수 없다. 합창단을 만들고 싶어도 젊은 불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청년 불자수가 미약하다. 전라북도의 경우 국회의원 11명 중 불자는 한 명도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개신교 재단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종교 서약을 강요하거나 불종 행사 때 설치한 연등이 '종교편향'이라며 항의하는 사태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전주 개신교 단체는 최근 연등

설치가 보행 안전을 저해하고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며 전주 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그러나 이들 3개 지역은 무종교인 비율이 높아 불교 발전과 포교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곳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무종교인 비율이 51.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무종교인 비율은 전국 평균 46.5%보다 높거나 유사한 46.3%, 51.0%로 나타났다. 그만큼 포교의 여지가 전국 다른 지역들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호남 불교계도 교세의 열세를 극복하고 포교 확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고 있다. 지난 해 10월에는 광주·전남 전법단이 출범해 35명의 전법사가 위촉됐다. 광주·전남 신도회는 또 지난 해 12월 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재가 불자회 발전 방안과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전남 불교계 NGO들도 광주전남 불교의 사회참여와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지난 해 연대 기구를 발족하기도 했다.

완주 송광사 청년회는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한 정진법회'를 2009년 11월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선운사는 고창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기관을 위탁운영하면서 복지를 통한 포교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선운사가 운영 중인 복지시설에는 하루 평균 500~600명이 이용 중이다.

그러나 호남 불교 관계자들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의 개별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원일 전북불교신도회 사무처장은 "신행단체들은 점점 줄어들고, 상좌가 없는 절도 많다. 종단 차원에서 포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청소년 심리와 복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담양 호국사, 극락보전 낙성식 봉행



"나라를 지킨 의로운 이들의 마음을 이제는 군민의 평안을 위해 회향 합니다." 담양 호국사(주지 분봉)는 호국영령을 보호하고 군민의 안락한 삶을 기원하는 극락보전 낙성식을 5월 1일 봉행했다. 2

월 착공 후 3개월 여 만이다.

이날 낙성한 극락보전은 맛배지봉 전통양식의 건물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또한 극락보전 내부에는 담양 용구산 해적암에서 이운된 목조아미타여래좌상(지방문화재 제287호)이 봉안됐다.

호국사 주지 분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호국사는 이 나라가 위기일 때 번연히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지킨 숭고한 분들을 모신 사찰이다. 이번 극락보전은 이분들의 숭고한 의미를 보존하고, 더 나아가 담양군민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수산 스님(고불종림 백양사 방장), 암도 스님(조계종 원로 의원)을 비롯한 신도 200여 명이 참석해 낙성식을 축하했다. 낙성식 후에는 전통무예인 진식태극권 실용권법의 시연이 진행돼 많은 이들의 환호를 받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금선사 생명·불교 강좌 개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빛고을 시민들을 위한 생명과 불교에 대한 특별한 강의가 개최됐다.

광주 금선사(주지 일명)는 우희종 교수(서울대)를 초청해 대웅전 앞마당에서 특별강좌를 5월 1일 개최했다. 특별 강좌에는 법일 스님(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과 시각 스님(만덕사 주지)을 비롯해 200여 시민과 불자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우희종 교수는 "물질과 과학시대에 생명을 파괴하는 이유는 연거진 관계 속에 자기 존재를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사실과 지식보다는 진실과 지혜를 갖고 올바르게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명 스님은 "환경과 생명 위협받는 세상에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부대행사로 '뫼생명에게 보내는 생명의 뜰에 손재를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사실과 지식보다는 진실과 지혜를 갖고 올바르게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특별기고> 이해모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호남인의 아픔 보듬어야 불교 자란다

호남불교는 백제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백제불교는 일본에 처음 불교를 전하는 역할을 했다.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서도 아스카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역사적으로 호남불교는 매 시기마다 민중들과 함께 호흡하는 물론 한국불교 속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도침 스님의 국권회복운동, 진표 스님의 미륵신앙운동은 어려운 시기 민중과 함께 호흡하고 민중들을 교화하는 실천적 선지자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고려불교가 타락하여 민중들의 고향을 빼앗아먹고 불교의 위상이 땅끝까지 추락했을 때 새로운 불교의 혁신과 기치를 내세워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송광사에 수선사(修禪社)를, 원묘국사 요세 스님이 백련사에 백련사(白蓮社)를 설치하여 대중결사운동을 펼쳐왔다.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시대를 이어 조선 침략시기에 의승군 활동, 감응농민전쟁 시

기에도 많은 승려들이 농민군에 함께 하였음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불교의 현재적 모습과 위기를 갖추기 시작한 근현대에 들어서 호남불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마다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비해 개신교와 가톨릭은 우리나라에 이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교임에도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역사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질곡과 함께 호흡해 왔다.

물론 호남지역 불교도 지광 김동수열사의 보살적인 삶, 80년대 후반 이후 지선 스님이나 진관 스님, 대불리나 청년회 등 양심적인 불자들이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전력해 왔다. 그리고 수많은 고승대덕이 호남 지역에서 배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전체 호남지역민들의 고통과 아픔, 애환을 섬수해내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이런 상황이 현재 전국 최하위 교세와 더불어 사회적 영향력이 미미하게 와 있지 않나 가슴 아프게 성찰해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불교의 미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자. 먼저 호남지역은 백제탑과 빼어난 부도들, 석장승 그리고 구산선문 사찰과 역사 문화 원형들을 고스란히 간직한 사찰들이 즐비하다. 온갖 보물들을 보듬어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유무형의 문화원형들을 발굴해 내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예스21 맛을 살린 고찰들의 문화관광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호남지역민들의 아픔과 고뇌, 애환은 무엇인지를 냉철히 살피고 적극적인 전망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민들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살피고 그 고통받고 아파

하는 부분을 위무하는 실천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때다.

다시 말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를 담보해 내는 불교NGO의 영역이 확대되고 넓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는 생명, 평화, 통일, 언론, 여성, 다문화사업 등 다양한 영역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대부분이 농촌을 근간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호남불교이기에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공동체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좋은 예가 실상사 사부대중공동체의 귀농학교나 대안학교 등 대안운동, 땅끝마을에서 다양한 농촌사찰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미항사 등을 주목하여 다양한 지역공동체운동의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제 외형적인 건축불사를 지양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속에서 디지털 세대,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이웃들에게 어떠한 믿음과 희망을 안겨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시작해 보자.



전북 봉축행사, 전통과 불교의 만남

제11회 전북불교합창제가 전북봉축위원장 원행 스님(금산사 주지)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불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예술회관에서 4월 27일 개최됐다. 이번 합창제에는 무주 향산사 부루나 합창단과 전북불교발전협의회 남성중창단이 새로 참여했다.

원행 스님은 "합창을 통해 화합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참다운 불교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23일에는 전북 덕진 공원에서 2000여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참가한 가

운데 전북어린이큰잔치가 개최됐다.

부처님오신날 행사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 금산사 주지)와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전북지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글짓기 대회, 사생대회 및 다양한 민속놀이와 문화체험이 펼쳐졌다.

한편 이번 전북 어린이 큰 잔치는 전통 및 불교문화 체험을 통해 가족 사랑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로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앰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점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tal Echo

• 高音質 무선마이크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 DX-707 스탠드 마이크

• 법당 전용 스피커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질,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상자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일반형) / 175,000원 (고급형)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화제의 신간

춘하추동

한국 최초 계절로 풀이한 사주팔자

당신이 태어난 계절은? 직업은? 운명은?

흔히 3박자가 맞아야 대운길격(大運吉格)이라고 한다. 당신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운명의 3박자는 무엇인가?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일년의 기둥이 되고 있는 이 4계절은 각 3개월씩 나누어져 운명의 흐름이 각각 달라진다. 당신은 어느 계절에 태어났으며, 그 계절의 운세의 흐름이 당신의 운명에 어떤 작용을 할까?

사람을 깊숙이 꿰뚫어 보는 법 / 21C 신개념 행복 부자되는 사주팔자

■ 甲長慧印 이준용 지음 / 신국판 / 340쪽 / 정가 20,000원

육임이 보인다	이계 풍수사	육묘학 핵심비결
功忠 지음 / 4x6배판/양장본/70,000원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30,000원

신비의 영부처 대사전 그림 당사주 대전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풍수 양택통론

김백만 편지/신국판/양장본/50,000원 4x6배판/이선암,전효일 공저/양장본/25,000원 徐昇煥 지음/4x6배판/양장본 1권 880쪽 / 2권 680쪽/각 2권 50,000원 鄭炳玉 博士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25,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E-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명당 찾기의 참된 길잡이

한국의 재혈풍수

[④권 · ⑤권]

실존의 명당, 재혈에 의해서만 그 실체가 밝혀진다!

- '한국의 재혈풍수' 상 · 하권은, 고구려역법에 의지해서 태고 땅을 찾아내는 재혈의 이법과 실제를 손에 잡히도록 알기쉬운 이해의 경로를 밟아 상승하리므로 난해하다는 재혈의 한 기법이라도 바르게 깨닫는 데 중점을 두고 엮어내었다.

④권 冊面 鄭均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76쪽 / 정가 30,000원
⑤권 冊面 鄭均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12쪽 / 정가 30,000원

누구나 읽게 해 주고 싶은 책!

핵 · 심 · 사 · 주

1천여 년만에 탄생하는 새로운 정법 학술 !!

이제 천기를 누설 한다!!

기존의 사주학 학술로는 오직 개인의 숙명의 귀, 천 만을 알 수 있고 미래 운명의 예측은 50 여%에 미달하고 전혀 반대되는 운명을 예측하는 오류가 있다. 본 "핵심사주"는 1천여 년 만에 사주학의 올바른 정법 법칙을 완성한 역적이다!!

왜 핵심사주인가.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최초로 공개되는 공명의 비법!!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鄭炳玉 博士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25,000원